

내가 생각하는 대학

문헌정보학과 60200820 오유성

1. (과거) 내가 생각했던 대학

초과학기까지 이수하며 졸업을 앞둔 현재로서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대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어느새 5년이란 시간 뒤로 지나가 버린 고등학교 시절을 반추해 보자면, 나에게 대학은 가도 안 가도 상관없는 기관이었다. 그저 주위의 환경이 나에게 대학을 요구하고, 친구들이 모두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듯이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맞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간절하게 공부했지만 그 간절함이 향하는 목표가 어디인지 불분명했다.

한 편으로 경험해본 적 없는 곳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공부하는지, 그 안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했던 대학이란 공간은 제법 로망으로 점철된 공간이었다.

첫 코로나 학번이라는 썩 달갑지 않은 이름을 달고 새내기배움터나 동기들과의 만남 없이 입학했던 대학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웠다. 대학 건물조차 밟아본 적 없이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게 된 대학은,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갑자기 세상에 내던져진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열심히 하고자 하면 끝없이 높은 발판이 되어주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 주길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를 가두는 좁고 높은 감옥이 되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했고, 현재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2. (현재) 내가 느끼는 대학

지금 내가 느끼기에 대학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인 것 같다. 일단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면, 대체로 마련되어 있었다. 나의 경우 입학 후 굉장히 많은 희망 진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의 교과, 비교과 활동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스티브 잡스의 대학 졸업 연설 'Connecting the dots'를 배운 적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과거에 했던 사소한 선택들, 경험들이 돌아켜보니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에 빠짐없이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었다. 뭐라도 해 보자 싶어 했던 활동들, 융합전공에서 진학할 때 선택했던 학과, 수강했던 강의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 길이 보였던 것도 같다.

지금도 대학 생활은 잘 닦인 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내가 바라는 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3. (미래) 대학은 나에게 이런 곳이었다

미래에 대학은 어쩌면 애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목표했던 대학은 아니었기

에 정을 붙이기도 쉽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이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융합전공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 것도, 문헌정보학으로 진학해 내가 몰랐던 학문에 대해 공부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준 것도 이 곳이었다. 충분히 방황하고 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방황했던 시간만큼 학교를 떠올리면 밉기도 하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온 것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할 것 같다.

4. 졸업 전까지의 버킷리스트

작년부터 졸업이 가까워져 오니 크게 관심이 없었던 학회 활동이나 부트캠프와 같은 활동들에 대한 니즈가 생겼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그 때 목표했던 활동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ICT 대학에서 주최할 데이터분석/머신러닝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다. 수상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교내 대회에 참가하는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5. 2025년 버킷리스트

아래는 2025/1/1이 되자마자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이다.

- 1) 인턴 하기
- 2) 일본 해외여행 가기
- 3) 책 20권 읽기
- 4) 아르바이트 외 개인 프로젝트로 10만원 이상 벌여보기
- 5) 데이터 전처리 시 기본적인 문법에 막힘이 없을 정도로 파이썬 익히기
- 6) 자격증 3개 이상 취득하기

6. 10년 후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은?

10년 후이면 35살인데 다소 막연하긴 하지만, 해외에 있는 나의 모습이 계속 상상이 된다. 졸업 이후에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해외 대학 석사 혹은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내 진로와 관련된 경험과 커리어를 잘 쌓아두어 적어도 현재가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